

## (2) 행정분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국가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두 개의 정반대되는 견해로 양분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라는 제도들을 사탄에 의해 세워진 제도라고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국가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교회와 더불어 세상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는 업무를 띠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가는 사탄이 세운 제도라는 생각은 특히 로마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던 생각이었는데, 그들은,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19)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로마제국은 사탄의 국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교인들은 국가의 공직에 재임할 경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또 이교도적인 생활에 휩쓸려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가를 하느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생각한 열렬한 그리스도교인들은 교회와 협조하여 국가를 그리스도교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교화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교인의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교도인들의 축제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직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동료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황제와 통치자의 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봉사하였던 것이다.

불란서의 학자 르낭(1823~1892)은 예수가 사회적인 개혁자였으며, 따라서 예수는 폭력을 휘두르는 세속적인 정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분명 전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왕과 정치적인 통치기구가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예수는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마르코 2:26, 마태오 6:29, 12:42), 시바의 여왕도 높이 평가하였다(루가 11:31). 예수 자신이 다윗왕의 자손이었으며, 바리새아파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재판소의 관원들과도 친분을 맺었었다(루가 8:3). 예수는 가파르나움의 어떤 고관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그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시어 아들을 고쳐주셨다(요한 4:46절 이하). 예수께서 정부의 관리들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가파르나움의 한 백인 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기꺼이 가신 사건이다(루가 7:2-6). 또 한 예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함으로써 히브리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마태오 5:17). 예수는 또 나병환자를 고치신 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깨끗해진 사실을 증명하라고 말하였다(마르코 1:44). 그리고 성전세를 바침으로써 율법이 명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였다(마태오 17:24-27).

그러나 국가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마태오 22:21)는 저 유명한 말씀이다. 이 구절은 예수의 국가에 대한 견해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되는 구절이며, 교회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신도들에게 국가에 대해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서 카이사르가 세금을 걷을 권한을 하느님으로 부터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따라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볼 때에, 국가는 악마의 권한하에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드러난다.

예수께서 국가와 국가의 대표자들에 대해 보였던 것과 같은 태도를 사도 바울로도 보였다. 사도행전과 바울로가 보낸 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로가 일부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백인대장 글라우시오 리시아, 페스토, 아그리빠와, 백인대장 율리오 등은 바울로에 대해 친절하게 행동했었다(사도행전 19:31, 23:26, 25:12). 역사적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이방인이

있다가 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공직자들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고린토전서 7:20)라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계속 같은 공직에 봉사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회는 공식적으로 결코 로마국가를 사탄의 국가로 생각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까지 전파되고 국가에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으로 전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자, 과연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직책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답은 테트틸리아노스의 견해이다. 테트틸리아노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떤 공직에도 종사할 수 있으나, 다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희생의 제사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제사를 주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로마인들처럼 신에게 맹세를 해서도 안되며, 재판관일 경우에는 로마법에 따르면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참수형이 허용되므로 참수형을 언도해야 하는 죄목에 대한 재판에는 재판관으로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테트틸리아노스의 견해이다.

이리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스도교와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점차로 무르익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해 주는 배경은 사도 바울로의 말씀, 즉 국가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며, 교회와 국가는 하느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형제와 같다는 사도 바울로의 말씀이었다. 멜리톤 주교(130~180)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17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써보낸 저 유명한 변론문에서,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에 좋은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로마제국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만 일어나고 있다고 써보냈다.

그러나 멜리톤 주교가 훌륭한 언변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가슴 속에 뿌린 그리스도교와 로마제국의 상호연합의 씨앗은 즉시에 싹을 틔우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멜리톤 주교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였으며, 드디어 약 일세기 반이 지난 후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로마제국의 최고통치자로 즉위하자 이 씨앗에서는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혔다. 즉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황제로 즉위하자 고위사제를 친히 불러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 배웠으며, 주교들을 자신의 고문으로 삼았는데 이 중에는 아마도 코르두이스 성인도 포함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그리스도교인들을 국가의 중요한 공직에 임명하였으며, 주교들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하여 그들이 선교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교육을 많이 받은 성직자들을 궁중의 선생으로 삼기도 하였다.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보인 모범을 그 후의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도 따랐으며, 이리하여 비잔틴 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행정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오노리우스 황제(384~423)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면 궁중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자료를 보면 콘스탄티노스 대제 이전의 황제들도 그리스도교인들을 공직에 임명하였다고 쓰여져 있다. 카타르게니스는 기록하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교들은 황제에 의해 여러가지 공직에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오스 성인은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에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발레리아노스 황제(253~259)의 칙령을 보면 그리스도교인들 중에서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콘스탄티노스 대제와 그 후의 황제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국가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으며, 교회는 황제의 요구에 따라 도움을 주면서

국가로부터 원조와 보호를 받았다. 그리하여 교회는 국가에 충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성직자들이 국가의 업무에 봉사하도록 허락하였다. 이처럼 사목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공직에 봉사했던 성직자들 중에는 주교도 있으며, 총대주교가 두 가지의 임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사목의 임무와 중요한 공직을 맡는 임무를 수행한 성직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니시베오스 야코보(309~338)는 주교직과 사령관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② 시네시오스는 아직 주교가 되기 전인 405년경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구하였다. 그는 410년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주교로 임명되었으며, 412년 다시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행정권을 인수받아 침입자를 다시 한 번 물리쳤다.

③ 대 포티오스 성인(820~891)은 국왕 근위대의 대장이었으며 황제의 수석 비서관이었다. 858년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로 즉위하였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었던 대 포티오스 총대주교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④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니콜라오스 1세(901~907과 912~923)는 대 포티오스의 제자였으며, 그가 아직 수도사로 있을 때에 원로원 의원의 직위가 수여되었다. 총대주교가 된 후에도 그는 원로원 의원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황제의 고문의 역할을 맡았다.

저명한 비잔틴 학자인 Louis Brehier는 교회의 국가행정 참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기원 후 5세기부터는 주교들이 국가의 행정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은 원로원 의원이 되었으며 총 대주교들과 함께 국왕이 주관하는 회의에 초청되었다. 유스티노스 황제는 성직자들이

국가의 행정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직자들이 지방 통치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주교들은 권위의 행사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교의 윤리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아주 오래 전부터 주교들은 도시의 수호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사악한 통치자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유스티노스 황제는 주교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일부 공직자들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 도시의 통치자가 주교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욕탕, 다리, 상수도시설과 같이 공익사업의 감독을 주교들이 맡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는 법을 제정하여 주교들로 하여금 재판소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총대주교는 통치자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국가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통치자들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하기도 하였다.